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하 지 수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Sports Look Expressed in 20th Century Fashion

Ji-Soo Ha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sports look expressed in 20th century fashion. It is the Age of Sport just as rock'n roll became the dominant cultural form of the 1960's and 1970's. In the 1990's the sportswear is fashion. Designers gazing into the future are inspired by the details and functionality of clothing for snow boarding, skiing, motorbike racing and fitness. No doubt fashion in 2000 will also be full of references to it. Since the late 1960's, the sportswear that was originally a term for clothing worn for various sports activities in the 1890's has changed and is now considered as fashion for day as well as evening. This has occurred primarily in the U.S. due to the adoption of less formal lifestyles by Americans. While the sportswear is the term which stemmed from the need for functionality in sports, sports look is the style inspired by the formative elements, that is, the details, the silhouette, and the colors of the sportswear. New technologies for sports, the powerful influence of youthful culture, and the celebritizations of the sports stars made the sports look much hipper and more popular. I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esthetic values, i.e., the functional sports look, street sports look, and futuristic sports look. The functional sports look is expressed with simplicity, purism and no useless ornament, the street sports look with fun, androgynous and unisex mode and the mix and match of different texture and colors, and the futuristic sports look with new high tech fabrics and avant-garde style.

Key Word : 스포츠 룩, 기능주의 스포츠 룩, 스트리트 스포츠 룩, 미래지향 스포츠 룩

Sports Look, Functional Sports Look, Street Sports Look, Futuristic Sports Look

I. 서 론

마틴(Martin Jacques)¹⁾는 “현대는 스포츠의 시대이며, 1960년대와 1970년대 록(rock)이 문화를 지배한 것과 같이, 1990년대에는 스포츠가 모든 삶의 영역을 장악하며 문화를 지배한다”고 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하게 스포츠로 그치지 않고, 사업, 정치, 예술, 영화, TV, 광고, 패션, 디자인 등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이와 같이 모든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의 영향은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0년대 패션은 스포츠 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포츠가 많은 디자이너의 영감과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 콘스탄스(Constance C. R. White)³⁾는 ‘Now, Every Man a Sportsman’이라는 제목 하에 스포츠 롤이 2000년대에도 계속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비블로스(Byblos)는 1999년 추동콜렉션에서 옆 지퍼가 있는 팬츠와 패드를 넣은 조끼를 선보였으며, 지아니 베르사체(Giani Versace)는 텔과 깃털로 장식한 현란한 스키 팬츠를 발표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디자이너들의 최근 콜렉션에는 스노우 보드, 스키, 모토바이크 경기용 의복의 디테일과 기능성, 즉 스포츠용 의복에서의 영향이 확연하게 나타난다.⁴⁾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패션에 대해, 디자인에 대한 미적, 조형적 분석 연구보다는 스포츠 웨어의 역사적 고찰이 많이 선행되었으며, 젊음과 미래지향적 분위기가 창궐했던 1960년대에 대한 연구나 스포츠 웨어의 소재에 대한 연구 등의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정정미(1997)⁵⁾는 하이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을 사이버 스포츠 롤(cyber sports look), 바디 컨셔스 롤(body conscious look), 힙합 롤(hip-hop look)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분류체계는 사이버 스포츠 롤과 바디 컨셔스 롤의 구분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특정 스포츠에 직접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나 디테일과 액세서리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국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포츠 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본 고에서는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와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복식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현대인과 미래인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역사적 연구로 20세기 패션에서 스포츠웨어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스포츠웨어와 스포츠 롤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스포츠 롤이 대두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한다. 실증적 연구로 최근 스포츠 롤이 어떤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는가를 보그(Vogue)지, 바자(Bazaar)지, 뉴욕 타임스의 패션 리뷰(review)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II. 스포츠웨어와 스포츠 롤의 일반적 고찰

본 장에서는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롤의 미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포츠를 위해 입혀졌던 스포츠웨어와 그 발전을 살펴보며, 이에 영감받은 패션 디자인, 즉 스포츠 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스포츠웨어의 일반적 고찰

1) 스포츠웨어의 정의

스포츠는 19세기이래 지금까지 유행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⁶⁾된다. 스포츠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오락(recreation)의 근원, 성적 유희, 퍼즐을 위한 신체적 활동, 운동경기, 둘째, 즐거움, 장난, 조롱이나 웃음거리, 셋째, 유희와 관련된 것, 넷째, 운동선수, 운동가 정신(sportsmanship)을 지키는 사람, 다섯째, 개인의 정상적 한계를 넘어서 순간적 일탈을 보여주는 사람⁷⁾ 등이다. 즉,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의미는

물론 노동 활동이 아닌 'Fun'과 관련되는 유희적 인간 활동이라는 광의를 갖는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의복이 스포츠웨어 할 수 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1890년대 테니스, 골프, 자전거, 수영, 아이스 스케이트, 요트, 사냥 등의 활동시 입혀진 의복을 의미한다.

둘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웨터, 치마, 블라우스, 팬츠, 반바지 등 스포츠 관람시 입는 의복인 캐주얼 웨어를 의미하는 용어로 대중화되었다.⁸⁾ 그 한 예로 스웨터를 들 수 있다. 오늘날 패션에서 캐주얼 의복을 의미하는 스웨터는 느린 경기 속도와 영국의 선선한 여름 기후로 인해 골프나 크리켓 사용하는 의복이었다.

셋째, 1960년대 후반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해 스포츠 의복의 원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브닝 웨어는 물론 일상복을 위한 패션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미국인들의 캐주얼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생겨났으며 복식사에 미국인의 큰 공헌으로 인정된다.⁹⁾ 스포츠 재킷은 19세기 중반 영국 해변 리조트에서 라운지 재킷(lounge jacket)이라는 크리켓용 의복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캠브리지 대학 보트 클럽 구성원들이 타오르는(blazing) 빨강 색의 재킷을 입었는데 이를 블레이저(blazer)라 했다.¹⁰⁾ 블레이저는 1970년대에 여성에게 대중화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테일러드 스커트와 함께 여성 경영자의 중요한 의복이 되었다.¹¹⁾

2) 스포츠웨어의 확산과 발전

1920년대 프랑스 챔피언 스잔 렁렌(Susan Lenglen)이 잔 파뚜(Jean Patou) 디자인의 페티코트와 긴 소매를 입고 스타킹을 신지 않고 코트에 선 이후 실용성 있는 여성용 스포츠웨어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카우보이들이 목에 둘렀던 벤대나(bandannas)를 얼굴에 둘러 먼지가 입과 코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는데, 웜블던에서

애거시(Andre Agassi)가 분홍 페이즐리 무늬의 벤대나를 머리에 두르고 출장한 이후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즐겨 사용한다.¹²⁾

산업사회 이전 유한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스포츠웨어와 용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였다. 스포츠웨어의 개념 또한 특정 스포츠와 관련한 의복에서 캐주얼웨어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일련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복을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로 구분 지어 사용한다. 전문적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캐주얼웨어의 의미든, 오늘날 스포츠웨어의 개념으로 정착되기까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필요에 의한 전문 기술의 발달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의 부각, 미디어의 발달 등이 큰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의복의 재료, 구성, 형태 변화를 가능케 했으며 스포츠웨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은 디자이너와 스포츠 스타들은 이 새로운 스타일의 대중화를 도왔다.

한계 상황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모험정신은 액티브 스포츠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가능케 한다. 최근 방풍, 방수, 방빙과 보온이 필요한 오프 피스트(off-piste)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의 익스트림(extreme) 경기의 유행으로 스피드보다는 활동성과 생존이 더 중요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요소로 등장하여, 종래의 홀겸의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보다는 고어텍스와 액티벤트(Activent) 등 신소재로 만든 협령한 팬츠가 자주 입힌다. 일차 세계 대전시 처음으로 선보인 야구모자는 선수의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팀의 로고와 색, 스폰서를 광고하는 역할 뿐 아니라 스포츠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야구모자는 그 형태상 착용자의 시야를 가려 스포츠 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바람에 날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버버 플리스 3 웨이 모자(Berber fleece 3 way hat)는 머리에 꼭 맞는 니트 모자로 귀를 잘 덮어주

며, 보온성이 우수해 스키, 스노우 보드, 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에 많이 쓰인다. 산악자전거 선수들은 머리보호를 위해 카본 파이버와 켈바(Kelva: 방탄조끼의 소재)로 만든 헬멧을 쓴다. 이 중 메트 니트로 다운 헬멧(Met Nitro Downhill Helmet)은 머리에 편안히 맞게 하기 위한 공기조절 장치가 되어 있다.

2. 스포츠 룩의 일반적 고찰

1) 스포츠 룩의 정의

스포츠와 관련된 패션 용어로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스포츠 룩(sports look) 등이 있다. 오늘날 스포츠웨어라 불리는 기능적이며 유행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 자유로운 의복 스타일은 1940년대 경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 Judy Grossbard(1990)¹⁴⁾는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패션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대중 스포츠인 자전거용 의복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스트리트 스타일이 패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195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스포츠웨어의 유니폼화 경향이 약해지면서 스포티브 룩이 유행하게 되었으며¹⁵⁾ 1960년대 입센 로랑(Yves Saint Laurent), 피에르 카르뎅(Pierre Cardin), 꾸레지(Courrèges) 등이 이러한 스포티브 스타일을 디자인에 적용시키면서 패션의 새로운 스포팅 룩과 우주시대 룩을 이끌어 나갔다.¹⁶⁾ 스포티브는 스포츠의 형용사로써 디자인의 스포츠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스포티브 룩은 스포츠 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스포츠웨어가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의복이라면 스포츠 룩은 스포츠나 스포츠웨어의 형태, 디테일, 색상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의복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일상복이나 이브닝웨어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이 스포츠웨어 특히,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외형적 특징으로 가질 때 이를 스포츠 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룩이란 미적 조형성을 위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디자인 특성을 사용하는 룩을 의미한다.

2) 스포츠 룩이 대두된 사회, 문화적 배경

① 뉴 테크놀러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최첨단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역사적 변환으로 인해 뉴 테크놀러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 문화, 예술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패션에서는 새로운 직물과 기술을 사용한 테크노 룩과 사이버 룩의 유행이 최근 몇 년 동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최첨단으로 인식되는 혁신의 상당 부분은 직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수 신소재는 스포츠웨어 회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1960년대 스키의 보급과 방수, 방풍 소재의 개발은 스키복의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벼운 방풍 나일론의 모자 달린 재킷은 가장 인기 있는 의복이었다.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은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 대담한 수영복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운동에 대한 열기와 함께 1970년 스판덱스 사이클 반바지와 러닝 슈즈가 인기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착용한 100퍼센트 폴리에스터 직물인 플리스(fleece)¹⁷⁾ 또한 대표적 예이다.¹⁸⁾ 플리스는 패션 디자인에 크게 유행되어 캡(Gap)은 1999년 겨울 '테크노 베스트: Vest for Everybody'라는 슬로건 아래 플리스 조끼의 대대적 판촉을 전개하고 있다. 고어텍스, 벨크로(Velcro), 케블라(Kevlar: 우주복과 우주선 재료), PTFE(표면마찰이 거의 없는 재료) 등, 절연은 물론 일명 숨쉬는 직물은 스포츠 기구 뿐 아니라 부엌 디자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일본 직물 제조사는 체온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신체 활동에 따라 향기를 내는, 혹은 비타민을 함유한 지능(intelligent) 섬유를 개발했다. 새로운 신소재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스포츠관련 기구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어져 미래지향적 스포츠 디자인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기술개발로 가능해진 새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이 패션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며, 뉴 테크놀러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스포츠의 인기는 패션에서의 스포츠 룩의 유행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테크노 섬유들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면에서는 물론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과 영감을 주어 현대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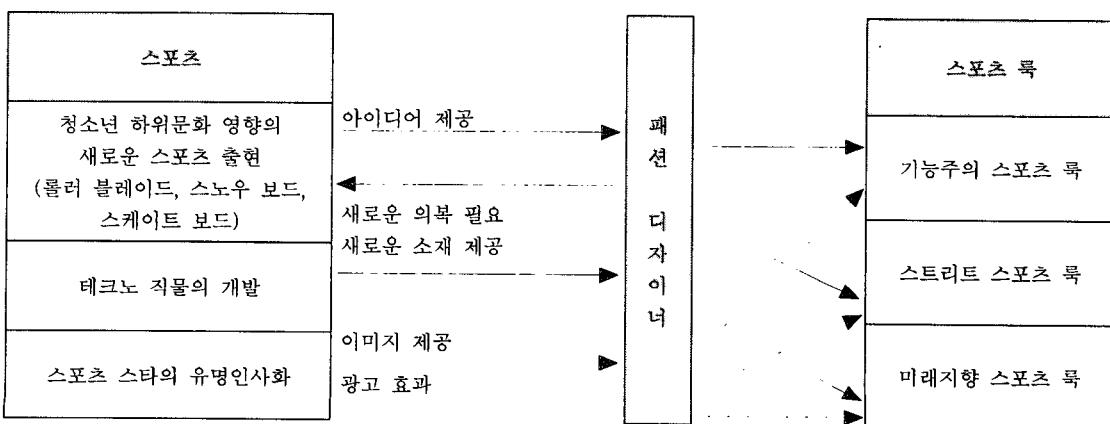
② 청소년 하위문화의 대두

오늘날의 패션은 과거와는 달리 대중 특히, 자기 중심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하위 문화는 랩, 낙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출연시켜왔는데, 스포츠에 있어서 길거리 농구, 롤러 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스노우 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특징은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이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스케이트보딩은 90년대 이후 협합 문화가 소개되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 이들의 전형적인 의상으로 엉덩이에 가까스로 걸려있는 헐렁한 바지, 박스형 T셔츠, 어깨에 둘러맨 가방, 스니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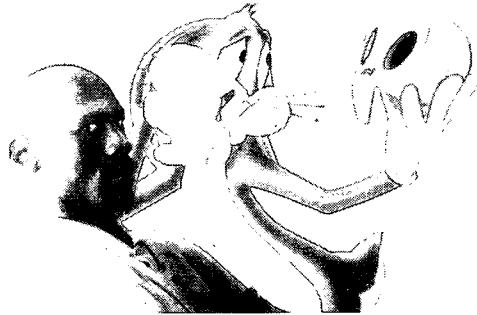
1970년대 후반 뉴욕의 메신저(messenger)들이 자전거 안장으로부터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가랑이에 패드를 댄 무릎길이의 스판덱스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으며 디자이너들은 이 룩을 받아들여 클럽이나 스트리트에서 유행시켰다. 테니스 챔피온 애거시도 면 테니스 셔츠 밑에 사이클 반바지를 입었으며, 1980년대 모자 달린 트랙수트(tracksuit)를 중심으로 짚음을 주창하는 협합 패션이 형성되었다.¹⁹⁾ 강한 하위문화 형성에는 MTV(Music Television) 등 청소년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③ 스포츠 스타의 유명인사(celebrities)화

윔블던이나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운동 경기는 직물과 스포츠웨어 디자인에 있어 기술 개발의 실험실은 물론 패션 전시실 역할을 한다. 서양의 이상적 신체조건을 갖춘 현대 스포츠 스타들은 스포츠웨어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들이 입은 의복은 아마추어 운동선수 의복에는 물론 비스포츠 의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92년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리그 우승 팀인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사진 1>을 전속으로 한 나이키 광고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만화 영화 스페이스 잼(Space Jam, 1996)에도 출연한 마이클은 이제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닌 청소년의 우상이 되었다. 1999년 여자 테니스 3위에 오른 17세의 비너스 윌리엄스(Venus



<그림 1> 스포츠 룩의 형성



<사진 1> 영화 스페이스 잭의 마이클 조단과 베니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p.20

Williams) 또한 코트를 누비는 긴 다리와 팔 뿐 아니라 흑인들 특유의 구슬을 뻔 헤어스타일과 대담한 목걸이, 반지, 등을 드러내는 리복(Reebok)사 테니스 원피스 드레스의 패션 스타일로 인기를 모았다. 이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팬들의 우상으로 영화배우나 가수들과 같이 유명인사화되어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패션에 스포츠의 영향을 몰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탄성이 큰 라이크라의 사용에서 태양의 적외선을 체에너ジ로 변환시키는 지능 섬유의 개발에 이르기 까지, 고도의 성능과 기술혁신을 이룬 최첨단 스포츠웨어 디자인은 청소년 문화의 대두와 스포츠 스타의 유명인사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에 강한 영향을 주어 다음과 같은 스포츠 룩을 탄생시켰다.

III.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의 유형

1. 기능주의 스포츠 룩(functional sports look)

기능주의 스포츠 룩이란 단어 그대로 의복의 기능성을 위한 재료, 형태, 디테일,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심미적 이유에서 적용, 발전시킨 룩, 혹은

기능주의의 영향받은 룩을 의미한다. 기능주의는 1880년대 모던 건축디자인의 선구자인 루이스 살리반(Louis Sullivan)이 주장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슬로건과 1920년 “집은 삶을 위한 기계”라는 격언에서 구체적으로 천명되었다.²⁰⁾ 로돌리(Lodoli)는 확실한 기능이 없는 부분은 구조물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재료의 속성 자체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²¹⁾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성향²²⁾을 띈다. 그러므로 기능주의 디자인은 비장식성, 과거에서의 분리, 그리고 형태, 비율, 선과 재질에 충실했던 특성을 갖는다.

20세기 초 포아레(Poiret)와 샤넬(Chanel)은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무릎 길이의 드레스 밑에 받쳐입는 헐렁한 긴 바지를 유행시켰으며 서구 사회에서 ‘남성적’인 의복으로 간주된 바지는 1960년대 패션의 요소로 재등장하여 여성들 사이에 미니드레스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²³⁾ 샤넬의 캐주얼하고, 자유롭고, 단순한 스타일은 패션에 편안한 의복 스타일을 가져왔다. 많은 유럽의 하우스 디자이너들이 과거의 신체를 구속하는 의복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돋는 의복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능주의 스포츠 룩은 미국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스포츠용 의복은 영국에서 기원했으나 미국에서 더욱 다채롭게 발전되어²⁴⁾ 전통에 구속받지 않고 훨씬 자유롭게 발전했으며, 일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부유하게 된 미국 패션의 영향은 더욱 커졌다.²⁵⁾ 미국 패션은 1940년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미국 패션 이전에 미국 스타일이 존재했었다. 이 스타일은 미 독립전쟁 이후 집에서 만든 의복을 입자는 애국적 운동에서 기원했는데, 수입물품의 사용은 미국의 독립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요란한 의복은 독재하의 의복으로 간주되었으며 의복의 단순성은 자급자족과 민주주의의 자유를 상징했다.²⁶⁾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패션, 미국 고유한 스포츠웨어의 시작이었으

며, 클레이어 맥카델(Clair McCordell), 루디 견리히(Rudi Gernreich), 노마 카말리(Norma Kamali), 칼빈 클레인(Calvin Klein), 아이작 미즈라히(Isaac Mizrahi) 등의 디자이너들이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맥카델은 스포츠웨어 부문을 시작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디자인하여 스포츠웨어와 포멀웨어(formal)의 구분을 약화시켰다. 견리히는 무용수의 실용적 의복인 레오타드나 타이즈 등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했으며 모든 구속을 제거한 여성복의 새 장을 열었다. 바우하우스 기능주의 영향으로 의복의 장식이나 디테일보다는 움직임에 의한 형태변화에 관심을 두었으며, 의복의 유니섹스의 개념을 발전시킨 디자이너이다.²⁷⁾ 미즈라히는 독창적인 직물의 사용과 점프수트에서 긴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루엣의 사용으로 유명하다. 1988년 SPA콜렉션에서 롬퍼스(rompers)²⁸⁾, 야구 재킷, 놀이용 수트 등을 응용한 디자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미국 디자이너 뿐 아니라 샤넬과 입센 로랑 등 유럽의 디자이너도 스포츠웨어의 영향받은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성구별과 나이구별이 없는 미국 패션의 영향이다.²⁹⁾

20세기초부터 시작한 스포츠웨어의 영향은 계속 심화되어 드로스트링(drawstring), 모자등 모든 종류의 실용주의적 느낌을 가미한 스포츠 룩이 이브닝웨어에까지 나타나 이브닝 스포츠 룩(사진 2)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기능주의 스포츠 룩의 대표적 특징으로 포켓과 지퍼를 들 수 있다. 실용주의적 '신체가방(body bag)³⁰⁾' 중의 하나인 헬밋 랭(Helmut lang) 디자인은 벨크로(Velcro) 스트랩으로 허리와 왼쪽 다리에 둘러(사진 3), 도구 벨트나 권총 케이스를 연상시킨다.³¹⁾ 심지어 포켓 달린 부츠(사진 4)도 디자인되었다. 또한 스키팬츠의 영향을 받은 바지 통을 지퍼로 조절하는 팬츠 등 지퍼가 의복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5>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외투에서 유래해 옥외 스포츠의 우



<사진 2>이브닝 스포츠 룩, 터틀 넥 스웨터와 드로스트링 스커트 Bazaar September 1999, p.429



<사진 3> 헬밋 랭의 홀스터 백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98



<사진 4> 포켓 달린 부츠 Bazaar, January 1999 p.116



<사진 5> 판쵸 디자인 Bazaar, January 1999 p.88

의로 사용되는 판쵸(poncho)를 우주시대 디테일과 실크를 사용하여 재현한 랄프 로렌(Ralph Lauren)의 작품이다. 단순성과 순수성, 방금 체육관에서 나온 듯한 편안하고 헐렁한 실루엣과 단순하고 명확한 선, 지갑이 불필요한 쌈지, 앞치마/utility apron), 포켓, 지퍼가 응용된 기능적 디자인, 단화와 운동화의 착용, 아노락, 조끼, 하이킹 반바지 등 스포츠웨어의 응용, 토클(toggle)³²⁾, 플라스틱 클램프, 자석 단추 등을 이용한 여밈 등이 기능주의 스포츠룩의 특성이다.

2. 스트리트 스포츠 룩(street sports look)

오늘날 하이 패션은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인 영감을 받는다. 스트리트 스포츠 룩은 카르고 팬츠, 피 재킷(pea jacket), 서프 T 셔츠, 메신저 가방 등 도시 청소년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에서 영향받은 구체적 아이템이나 디자인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들이 의복을 통해 표현하는 의식과 의복에 대한 태도, 행동 등을 반영하는 룩을 의미한다.

청소년 하위문화의 강세는 젊은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생겨났다. 청바지, 타이 없는 셔츠, 가죽잠바 등 빈민계급의 의복을 착용함

으로써 침몰한 소비사회를 비웃고 부르주아적 패력을 경멸했다. 이후 이 스타일은 '비트(beat) 세대' 대학생 남녀 모두의 실용적 투쟁의복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사회에 대한 반발보다는 또래집단과의 연대를 위해 이와 같은 차림을 했다.³³⁾ 1950년 말 일센 로랑은 스트리트 패션을 선보였으며³⁴⁾ 1965년 앤드레 구레지(André Courrèges)는 미니스커트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는 전 세기 전환기의 포아레와 같이 여성의 다양한 포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적 여성의 활동적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패션의 필요를 잘 포착한 결과이다. 급증하는 청소년 세대에 알맞은 젊고 활동적이며 단순한 여성 이미지를 창조했다.

TV를 보거나, 갑 상점을 지나쳐 가거나 혹은 거리에 나서면 최근 열광적인 캐주얼웨어의 인기, 카르고 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 톰 포드(Tom Ford) 등 주요 디자이너들도 이에 영감 받은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차 세계대전에서 유래되었으며 월남전에서 큰 포켓이 달리게 된 카르고 팬츠는 수년 동안 평크 락 가수들과 히피에 의해 항변의 의미로 착용되었으며 이 후 여러 차례 유행되었다. 최근 카르고 팬츠의 재현은 스케이트 보더의 영향 혹은 랩 가수의 홀려내릴 듯한 헐렁한 바지의 대안이다. 헬멧 랭의 통이 좁은 도시-군인 스타일(urban-militia attitude), 올드 네이비(Old Navy)의 여름용 카키 스타일, 베르사체의 90년대 히피 평크 스타일 등 다양하게 해석, 표현되며, 면에서 고급 캐시미어등 여러 직물로 만들어진다.³⁵⁾

미국 인기 스포츠, 청소년 스트리트 스타일과 락(rock)을 결합하여 대중적인 새로운 패션을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대표적 디자이너로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를 들 수 있다. 힐피거가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 주제는 '바람직하고 분명한 즐거움(good and clear fun)'으로 주로 다양한 색의 스포티하고 편안한 의복을 디자인한다. 그의 디자인은

아프리칸-아메리칸과 라틴 아메리칸 도시 청소년의 상징적 의복이 되었다.³⁶⁾ <사진 6>은 1997년 작품으로 극한 기후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신소재 조합을 사용한 해양 수트이다. 홀러내릴 듯이 엉덩이에 걸친 파자마 같은 혈령한 바지와 겉으로 드러난 속옷, 남녀 함께 입는 유니섹스 모드와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스타일, 캐시미어와 나일론 등 이질적 재료와 대담한 색상의 병립적 사용, 원색의 고글, 선글라스와 가죽장갑, 어깨에 둘러 맨 큰 가방, 에스닉 헤어스타일, 낡은 스니커 등이 대중적 스트리트 스포츠 룩의 특징이다. 하이 패션은 물론 도시 청소년의 스트리트 스포츠 룩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스니커는 특수한 스포츠 신발에서 패션의 주류로 전환된 대표적 예다. 1979년 카밀리가 검정색 캔버스 농구화의 목을 잘라 버리고 높은 고무 밑창을 맨 하이 힐 스니커를 디자인했다.³⁷⁾ <사진 7>은 리바이스(Levi's)의 실버 탭(silver tab) 광고로 전형적 스트리트 스포츠 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는 1997년 춘하 콜렉션에서 혈령한 나일론 팬츠와 남색의 클래식 줄무늬 셔츠, 재킷의 병용, 원색의 스니커로 남성 스트리트 스포츠 룩<사진 8>을 표현했다. 라거펠드(Karl Lagerfeld)는 샤넬을 위해 스



<사진 6> 토미 힐피거 디자인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p.11



<사진 7> 리바이스 광고 스트리트 스포츠 룩



<사진 8>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p.98

트리트 스포츠³⁸⁾ 룩을 디자인했는데 은색의 혈령한 바지와 굽은 체인 벨트를 통해 샤넬 스타일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성공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3. 미래지향 스포츠 룩(futuristic sports look)

20세기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컴퓨터와 정보기술,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사진 등의 시각매체가 스포츠와 결합되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미래지향적 주제를 제공한다. 미래지향 스포츠 룩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스포츠맨을 돋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발전, 즉,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구, 새로운 디자인에 영향받은 패션 디자인을 의미한다.

1952년 퀼트된(quilted) 에스키모 아노락과 파카가 일상복으로 선보인 이후 나일론 필링의 대용으로 거위털이 사용, 유행되었고 최근에는 우주인이 사용한 열과 추위를 잘 막는 알루미늄 라이닝이 사용된다.³⁹⁾ <사진 9>는 이 알루미늄 소재를 연상시키는 헬밋 랭의 '우주전사(space cadet)'을 주제로 한 모토사이클 팬츠와 재킷이다. 밤에 조깅하는 이들을 위하여 비행기 비상착륙 장치 기술을 빌린 발광체(Glo-works)를 T 셔츠에 부착한다. 유연성이 뛰어난 이 물질은 어둠속 1/4 마일 밖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사진 10>는 이를 이용한 면 상의와 청바지 디자인이다.



<사진 9> 헬밋 랭의 '우주전사' Vogue, July 1900, p.148



<사진 10>Day-Glo를 이용한 디자인, Bazaar December 1998, p.179

의복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패션에 도입한 디자이너로 파코 라반(Paco Rabanne)과 르디 전리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특별히 스포츠에 영향받지 않았으나 독특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세계를 표현했다.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1960년대는 인간이 우주탐험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였으며 기술혁명과 우주시대의 개막의 영향으로 우주시대 패션이 유행했다. 과거의 과다한 장식성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형태로 플라스틱, 유리, 비닐, 라이크라 등 다양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아방가르드(avant-garde) 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유행하는 미래지향적 스포츠 혹은 자동차 경주, 모토 사이클 등의 스피드 경주나 롤라블레이드 등의 청소년의 새로운 스포츠를 주제로 한다. 네오프린(neoprene), 라이크라, 네트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 스포츠 관련 직물을 사용하며 인체공학과 관련된 테크노 스포츠 디자인을 패션에 적용시킨다.

오즈벡(Ozbek)은 운동선수에서 영감을 받아 메쉬 합성섬유를 사용한 긴 드레스⁴⁰⁾를 디자인했으며, 프라다는 스웨이드에 작은 구멍을 뚫어 메쉬(mesh)를 모방<사진 11>하였다. 값싼 합성섬유의 특성을 고급 섬유를 사용해 재현했다. 고급 천연 섬유의 사용과 강한 전통을 고집하는 샤넬조차 스쿠



<사진 11> 프라다 디자인 Bazaar, February 1999 p.175

버 다이버용 의복에 사용되는 네오프린을 이용한 수트와 상의를 디자인했다. 스니커뿐 아니라 남녀 공용의 투박한 스타일인 여름용 샌들도 스포츠 록의 대표적 신발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프라다는 '미래의 구현(Envisioning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하이테크 고무 샌들(사진 12)을, 에반 피콘(Evan-Picone)은 인체공학 디자인의 샌들을, 나인 웨스트(9 west)는 '테크 캔버스(tech canvas)' 샌들을 디자인했다.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⁴¹⁾은 스

포츠의 발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니커를 즐겨 신는 도시인을 '테크노 도시 전사(techno urban



<사진 12> '미래구현' 샌들 Vogue, November 1998 p.204

<표 1> 스포츠 록 유형의 조형적 특성

스포츠 록	기능주의 스포츠 록	스트리트 스포츠 록	미래지향 스포츠 록
실루엣·선	단순한 실루엣과 선	단순, 직선적 실루엣	
디테일	비장식성 톱스티치 드로스트링, 큰 포켓, 지퍼, 모자, 벨크로, 토클, 플라스틱 클램프, 자석 단추, 조끼 가방		과다장식의 기피 나일론 필링 알루미늄 라이닝 Glo-work(발광체) 퀄트, 패딩
색상	단색의 사용	다양한 원색의 병용	금속성 색상 무채색과 원색의 대비
직물	실크, 울 저지 등 천연 섬유 스트레치성이 강한 섬유의 사용	면, 캐시미어, 나일론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고급섬유와 저급섬유의 믹스 앤 매치	테크 캔버스, 네오프린, 라이크라, 네트 직물, 낙하산용 직물, 특수표면 처리한 스웨이드, 메쉬 등의 합성섬유
대표적 아이템	놀이용 수트, 점프수트, 롬퍼스, 파카, 판쵸, 야구재킷	엉덩이에 걸친 헐렁한 바지, 카르고 팬츠, 청바지, 피 재킷, 가죽 잡바, 서프 T셔츠, 걸으로 드러난 속옷	모토사이클 팬츠와 재킷, 아노락, 파카
액세서리	홀스터 백	고글, 선글라스, 낡은 스니커, 굽은 체인 벨트	하이테크 샌들과 부츠
특성	단순성(simplicity)과 순수성(purism) 기능성-편안한 의복스타일, 신체 활동을 돋는 의복(구속의 제거) T.P.O 개념의 약화, 스포츠웨어의 포멀웨어화 남성적, 유니섹스 미니멀리즘	대중적 단정치 못한 의복 착장 젊고 활동적이며 단순한 이미지 fun 도시군인 스타일, 히피펑크 스타일, 도시청소년의 상징적 스타일, 앤드로지니스, 에스닉 록	아방가르드 스타일 인체공학 디자인의 도입 혹은 모방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용
대표적 디자이너	포아레, 샤넬 다수의 미국 디자이너(클레이어 백 카렐, 루디 건리히, 노마 카말리, 갤빈 클라인, 아이작 미즈라히, 랄프 로렌 등) 헬밋 랭, 질 산더	입센 로랑, 안드레 꾸레지, 니르시스 로드리게즈, 톰 포드, 라거펠트, 토미 힐피거	루디 건리히 오즈베, 프라다, 헬밋 랭, 샤넬의 라거펠트

warriors)'들이라 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스포츠 룩의 세가지 미적 가치, 즉 기능주의, 대중적 스트리트, 미래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된다.

IV. 결 론

본고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의미, 나아가서는 노동이 아닌 유희적 인간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스포츠에서 영향받은 20세기 패션에 대한 고찰이다. 스포츠웨어는 19세기 이후 다양해진 스포츠와 여가 지향적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변화, 발전되었으며 그 의미가 모든 평상복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스포츠웨어와 스포츠 룩의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스포츠웨어가 스포츠 활동의 기능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의복이라면 스포츠 룩은 스포츠나 스포츠웨어의 형태, 디테일, 색상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의복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복이나 이브닝웨어 등 비스포츠용 의복이 스포츠용 의복 특히,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요소를 조형적 특성으로 가질 때 이를 스포츠 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룩은 고도의 성능과 기술 혁신을 이룬 최첨단 스포츠 디자인, 청소년 하위 문화의 대두와 스포츠 스타의 유명인사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스포츠 룩 유형은 기능주의 스포츠 룩, 스트리트 스포츠 룩, 미래주의 스포츠 룩으로 분류되며, 그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능주의 스포츠 룩은 단순성과 순수성, 편안하고 헐렁한 실루엣과 명확한 선, 기능적 스포츠웨어의 응용 등의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된다. 대중적 스트리트 스포츠 룩은 단정치 못한 스타일, 유니섹스 모드와 앤드로지

너스 스타일, 이질적 재료와 대담한 색상의 병립적 사용 등으로 표현되며, 미래지향적 스포츠 룩은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구, 새로운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을 의미한다. 모토 사이클, 롤러 블레이드 등 청소년의 새로운 스포츠를 주제로 인체공학과 관련된 테크노 스포츠 디자인을 전위적으로 패션에 적용시킨다.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 유형 중의 하나인 기능주의 스포츠 룩은 20세기 말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패션 디자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오랫동안 독보적인 패션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패션이 최근 미국의 패션에 관심을 보이며, 많은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미지의 모던화를 위해 미국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미국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대표적 스포츠웨어 디자이너인 토미 힐피거 (Tommy Hilfiger)의 쇼를 보기 위해 영국에서 뉴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스니커(sneakers)에 대한 최근 자료를 수집한다. 힙합(hip-hop) 스타일이 전 세계 도시들에서 최첨단으로 인지되고 미국인의 단순하고, 편안한 의복에 대한 아이디어와 갭(Gap)과 유사한 상점들이 모던한 의복의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샤텔에서 베이비 갭에 이르기 까지 모든 디자이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카르고 팬츠(cargo pants)와 같은 기능성(function)과 실용성(utility)을 강조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최근 크게 유행하는 기능주의 디자인의 미의식과 내적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ndrew, Susan. 'The Sportification of Cultur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 Anspach, Karlyne.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1.
- Boucher, FranÇois and Deslandres, Yvonne.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 Carter, Ernestine.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Frome and London: Butler & Tanner Ltd, 1977.
 - Donovan, Hedley. The Sporting Scene. New York: Time-Life Books, 1975.
 - Grossbard, Judy. 'Style Changes in American Women's Sportswear from 1881-1910'. PhD.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1990.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Jacques, Martin. 'Worshipping the body at altar of sport'. The observer, July 13 1997.
 - Janson, H. W. Form Follows Function-or Does It? Modern design theory and the history of art. Armsterdam: the Academische Pers, 1982.
 - Lee-Potter, Charlie.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Inc., 1984.
 - McKenzie, Joy. the Best in Sportswear Design. London: B.T.Batsford Ltd., 1997.
 - Milbank, Caroline Rennolds.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Publisher, 1989.
 - O'Hara, Georgin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6.
 - Rumbold, Judy. 'Fleece', Observer Life. January 18 1998.
 - Warner, Patricia C. 'Clothing the American Woma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1860 to 1940: Public and Private'. PhD.diss., University of Minnesota, 1987.
 - Contemporary Fashion. New York: St. James Presses An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 1995.
 - 'functionalism' Encyclopaedia Britannica on line.
 -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ition. Springfield: Merriam-Webster, Inc., 1996.
 - the New York Times.
- 1) Martin Jacques, 'Worshipping the body at altar of sport'. The observer, July 13 1997.
- 2) Susan Andrew, 'The Sportification of Culture', Winning The Design of Sports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p.10.
- 3) the New York Times, January 12 1999.
- 4) Ibid.
- 5) 정정미, '하이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6)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113.
- 7)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ition (Springfield: Merriam-Webster, Inc., 1996), p.1137.
- 8)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p.545.
- 9) Ibid., p.545.
- 10) Hedley Donovan, The Sporting Scene (New York: Time-Life Books, 1975), p.9.
- 11) Georgina O'Har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6), p.44.
- 12) Ibid., pp.50-53.
- 13) Patricia C. Warner, 'Clothing the American Woma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1860 to 1940: Public and Private', PhD. diss., University of Minnesota, 1987.
- 14) Judy Grossbard, 'Style Changes in American Women's Sportswear from 1881-1910', Ph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1990.
- 15) Charlie Lee-Potter,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New York: Abbeville Press, Inc., 1984), p.58.
- 16) Ibid., p.70.
- 17) '풀리스: 합성의, 있는 그대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기존의 고전적 스포츠웨어로부터 패션의 신화를 만든 섬유.' Judy Rumbold, 'fleece', Observer Life, January 18 1998에서 인용
- 18) Susan Andrew, op. cit., p.10.
- 19) Joy McKenzie, op. cit., p.9.
- 20) Encyclopaedia Britannica on line, 'functionalism'.
- 21) H. W. Janson, Form Follows Function-or Does It? Modern design theory and the history of art (Armsterdam: the Academische Pers, 1982), p.6.
- 22) Ibid., p.9.
- 23) FranÇois Boucher and Yvonne Deslandres,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p.429.
- 24) Karlyne Ansbach,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1), p.315.

- 25) Charlie Lee-Potter, op. cit., p.8.
- 26) Caroline Rennolds Milbank,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 1989), p.8.
- 27) Richard Martin and Richard Harrison, Contemporary Fashion (New York: St. James Presses An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 1995), p.196.
- 28) 아이들의 내리달이 놀이옷
- 29) the New York Times, April 16 1999.
- 30)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2 1998.
- 31) Ibid.
- 32) 스포츠웨어 따위의 앞자락을 여미는 장식용 막대 모양의 단추
- 33) FranÇois Boucher and Yvonne Deslandres, op. cit., pp.423-424.
- 34) Georgina O'Hara, op. cit., p.10.
- 35) Bazaar, June 1998, p.139.
- 36) Richard Martin and Richard Harrison, op. cit., p.229.
- 37) Joy McKenzie, op. cit., p.23.
- 38) "He brought a streetwise sophistication to the line... but a more subtle take on the streety, sporty influence...." 이는 the New York Times, October 18 1998의 패션 리뷰에서 인용함.
- 39) Ernestine Carter,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Frome and London: Butler & Tanner Ltd, 1977), p.222.
- 40) the New York Times, October 9 1998.
- 41) the New York Times, January 17 1999.